

# 다문화가정 남편의 부부갈등에 대한 질적연구\*

- 결정적 사건, 전개 및 대처를 중심으로 -

장은경<sup>a</sup> · 류진아<sup>b</sup>\*

<sup>a</sup> 동두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sup>b</sup> 신한대학교(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A Qualitative Study on Husbands' Experience in Marital Conflict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Critical Incident, Development and Coping -

Eun-Kyung Jang<sup>a</sup> · Jin-A Ryu<sup>b</sup>

<sup>a</sup> Dongducheon Multicultural Family Center, Korea

<sup>b</sup> Shinha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t marital conflict in multicultural families, a type of families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from husbands perspectiv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with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ask about marital conflict, and then,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analysis. In summar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decisive events that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often experienced in marital conflict with their wives were disrespect toward husbands and parents-in-law, husbands with a low level of trust, feelings of pressure due to financial support for wives' families and children and lack of practical sense about marriage. Second, development of marital conflict that husbands often experienced included aggravated cultural conflict between a couple and between members of the family, difficulty in managing blame and anger, signs of separation or divorce and wives leaving home and limitations in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Third, as to how husbands tried to deal with marital conflict, they tried to be patient and comfort wives,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ogether, find something that they could focus on, turn to religion or gatherings, use service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trust and develop rules and limit the range of their wives activities.

**Key words:** husband in multicultural family, marital conflict, critical incident

### 1. 서론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부부갈등 및 이혼문제도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의 국제결혼이혼은 2011년 11,500건으로 전년 대비 400

건이 늘었다(통계청, 2012a).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2012)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서류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

주요어: 다문화가정 남편, 부부갈등, 결정적사건

\* 본 논문은 장은경(2013)의 석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류진아) 전화: 031-870-1316 e-mail: jina1031@shinhan.ac.kr

을 발표하였다. 신상정보 제공의무화(2010, 11), 사중심사강화(2011, 3)등 도입에 따라 2011년도 국제결혼건수가 전년 대비 4,0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구체적인 주제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및 부부갈등(김오남, 2006; 박경동, 2007; 이아진, 오광실, & 최연실, 2011; 이현심, 2014; 조해선, 류진아, 2013; 전현영, 2012; 정혜정, 2012)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와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김진숙, 이혁구, & 이근무, 2010; 이주연, 신희천, & 최진아, 2011; 신경희 & 양성은, 2006; 최미나 & 유평수, 2014; 홍성희, 2012)이 이루어졌는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각 주제의 시각을 각각 깊이 있게 살펴보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결혼이민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연구는 남편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시각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김민정, 2012).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남편에 대한 연구들이 이전보다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초기에는 다문화가정 남편을 갈등 유발자(김오남, 2006)나 가정폭력가해자(최해금, 2007)라는 측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보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향숙(2013)과 이영희(2011), 임성옥 & 강성률(2011)은 남편의 시각에서 결혼적응과 부부갈등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인 김오남(2006), 오광실 & 정혜정(2012)의 연구 등은 양적 연구로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영희(2011)와 최지영(2009)은 다문화가정 남편으로서의 결혼생활 경험을 질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전반적인 남편으로서의 경험이므로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을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엄명용(2010)은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한국 남편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됨으로써 다문화사회 통합의 주체인 한국인 남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문화가족 내 한국 남편의 삶의 역정과 애환 등 전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남편의 부부갈등 대처과정과 유형을 밝힘으로써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고(구향숙, 2013), 임춘희(2014)는 다문화가정 재혼남성의 결혼생활 적응을 대처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최근의 다문화가정 남편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14,450건으로 10년 전보다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국내 전체 이혼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b).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을 보다 면밀하고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남편의 입장에서 결정적 사건, 전개 및 대처로 나누어서 구체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정적 사건이라는 용어는 John Flanagan이 1954년 *Psychological Bulletin*의 한 논고에서 '결정적 사건 기법(critical incidents technique)'이라는 말로 처음 사용한 이래, 40년 동안 행동과학에서 사용되어져 왔다(Scott, 2004). 결정적 사건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심화된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나 기존 연구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어졌다(Goodyear, Crego & Johnson, 1992; Ellis, 1991). 대처(coping)란, 개인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모든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라 이해되어 왔다(Lazarus & Folkman, 1984; Moos & Schaefer, 1993).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개인, 상황 요인과 함께 특정 문화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dwin, 1985; Lazarus & Folkman, 1984). 문화에 따라 경험될 수 있는 스트레스원의 종류라든지 실제 대처 행동을 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의 인식 및 대처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Aldwin,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을 일상생활의 풍부한 맥락을 통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례의 현상을 쪼개어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전일적(全一, holistic)으로 접근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을 남편의 경험을 통해 탐색해 보고 부부갈등이 그들의 삶과 성장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

적인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고찰

### 2.1. 다문화가정의 남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가는 한국인 남성을 ‘다문화가정의 남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다문화가정 남편의 특징(김민정, 2009; 강기정 & 변미희, 2009; 김진숙, 이혁구, & 이근무, 2009; 박재규, 2009; 최지영, 2009)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남편들의 국제결혼은 상업화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2000년 이후에는 종교단체보다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볼 때 서로에 대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후 적응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성사에만 급급하여 배우자의 신상을 부풀리거나 거짓말까지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부실결혼을 양산하며 과대 포장된 허위정보를 제공(설동훈 외, 2005)하기도 하였다. 둘째,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높고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전통적 가치관이 더 많이 남아 있어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나정임, 2011; 장은정, 2007). 셋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강하다. 아내와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남편들은 갈등을 풀지 못하여 이로 인해 오해를 낳고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넷째, 아내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설동훈 외, 2005).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상호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언어폭력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김상임, 2011).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남편들도 문화가 다른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이 상이한 문화에 노출되었을 때 그 타문화에 동의되어 질 것에 대한 부담과 내 문화에 대한 배려의 부재, 혹은 차별 등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일 때 경험하게 된다(Berry, 1996).

### 2.2.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이민식 & 오경자, 2000). 가정생활 중 부부가 각자 경험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긴장(이미영 & 박해인, 1995; 최선희 & 전명희, 1999)을 부부갈등으로 정의한다.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장기적인 결혼기간, 현실적인 생활조건, 복합적인 인간관계, 환경적 변화 등 부부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명자,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선 이입지에서의 언어와 음식, 풍습 등 문화적 차이에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더해져 내국인 부부가 경험하는 불화와 갈등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Flores et al., 2003; Schwarts, 2012). 타민족간의 결혼이 동일민족간의 결혼보다 배우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음주문제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rrier & Caetano, 2012).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에서 잠재해 있던 부부간의 차이를 표출시켜 서로 조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한다(김남진 & 김영희, 2005).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정문자 & 이종원, 2003).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인정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다(권정란 & 이인수, 2005; 정은희, 2004)고 하였다.

부부갈등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개인적 갈등영역은 부부 개인의 성격과 습관의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며, 둘째,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은 부부간 애정 및 성, 외도 등으로 인한 갈등이고, 셋째, 공동생활 갈등영역은 경제생활 및 여가생활, 주거주택계획 등에 관한 갈등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제삼자 영역의 갈등은 시부모 및 친인척 관계, 자녀양육, 사회활동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다(김오남, 2006).

선행 연구들(박형식, 2006; 설동훈 외, 2005; 신경희, 2004; 양철호 외, 2003; 윤형숙, 200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부

갈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시부모의 간섭과 더불어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부부생활 전반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국적, 교육수준, 거주지역, 한국어 수준과 같이 개인적 영역,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유무와 직업종류, 결혼기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같이 가족적 요인이 부부관계와 연관이 있었다(김오남, 2006; 이영선, 2008; 최의신, 2009). 장은정(2007)은 한국남편들의 가치관 특성은 근대적인 성역할관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 지어져서 이런 생활 습관들에 적응하기가 서로 힘들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우리나라 여성들도 무서워하는 ‘시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한국문화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서구와 사회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진보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 반면 한국인 남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정, 2007). 김오남 외(2008)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적응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은 배우

자인 남편이므로 결혼이민자 남편에 대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옥희 & 홍달아기(2008)는 부인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을 남편들도 역시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형성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준거적선택방법(조용환, 1999)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참여자의 특성을 상세히 지역사회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교회, 자원봉사센터)에 설명한 후 추천받았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부부갈등을 경험한 남편들을 소개받았다.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분	연령	아내국적	동거가족	결혼기간	직업	학력	결혼과정																																																																																						
1	본인	55	베트남	남편의 딸(20), 딸(15) 아내의 딸(21), 딸(16)	8년	가구운송	고졸	지인소개																																																																																						
	아내	40				가사	고졸		2	본인	32	중국	아들(4) 딸(1)	4년	공장직원	고졸	친척소개	아내	26	공장직원	고졸	3	본인	46	필리핀	아들(6), 아들(5) 딸(1)	6년	학교기사	대학원	국제결혼	아내	26	가사	고졸	4	본인	56	베트남	부모, 동생 자녀 없음	3년	세탁소	중졸	국제결혼	아내	27	봉제공장	고졸	5	본인	53	베트남	아들(5) 아들(1)	5년	상업	고졸	국제결혼	아내	31	가사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2	본인	32	중국	아들(4) 딸(1)	4년	공장직원	고졸	친척소개																																																																																						
	아내	26				공장직원	고졸		3	본인	46	필리핀	아들(6), 아들(5) 딸(1)	6년	학교기사	대학원	국제결혼	아내	26	가사	고졸	4	본인	56	베트남	부모, 동생 자녀 없음	3년	세탁소	중졸	국제결혼	아내	27	봉제공장	고졸	5	본인	53	베트남	아들(5) 아들(1)	5년	상업	고졸	국제결혼	아내	31	가사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3	본인	46	필리핀	아들(6), 아들(5) 딸(1)	6년	학교기사	대학원	국제결혼																																																																																						
	아내	26				가사	고졸		4	본인	56	베트남	부모, 동생 자녀 없음	3년	세탁소	중졸	국제결혼	아내	27	봉제공장	고졸	5	본인	53	베트남	아들(5) 아들(1)	5년	상업	고졸	국제결혼	아내	31	가사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4	본인	56	베트남	부모, 동생 자녀 없음	3년	세탁소	중졸	국제결혼																																																																																						
	아내	27				봉제공장	고졸		5	본인	53	베트남	아들(5) 아들(1)	5년	상업	고졸	국제결혼	아내	31	가사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5	본인	53	베트남	아들(5) 아들(1)	5년	상업	고졸	국제결혼																																																																																						
	아내	31				가사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6	본인	52	우즈베키스탄	아들(16) 딸(14)	17년	무역업	대졸	연애																																																																																						
	아내	40				무역업	전문대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7	본인	46	베트남	아들(8) 딸(4)	8년	용접공	중졸	국제결혼																																																																																						
	아내	29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8	본인	55	베트남	자녀없음	3년	무직	고졸	국제결혼																																																																																						
	아내	40				전자부품공장	고졸																																																																																							

### 3.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심층면접 전 참여자들에게 사생활 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참여동의서와 녹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구두 및 서면 동의를 얻었다. 심층면접은 교회찾집, 작업장,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회 면접은 1시간 2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개방형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3.3. 질적사례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해 탐색하고, 기술하며,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Yin, 2003) 이 방법은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정보, 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연구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황성동, 2013). 사례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사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 전략적 방법으로 하나의 개별적 경우에 대해 '직접해석'을 내리는 것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범주라고 분류될 때까지 경우를 모으는 범주화 방법(Stake, 1995)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본 연구는 '직접해석'과 '범주화'의 두 가지 자료분석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사례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며 주제와 개념들은 자료수집과정에서부터 발전된다(양영은, 배임호, 2010).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녹음된 자료를 모두 녹취하여 원자료화한 후 녹취록을 3~5회 읽고 행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경험(결정적 사건, 전개, 대처), 부부갈등의 의미를 범주화를 통해 주요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외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례에도 주목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높이고자 하였다(신경희, 양성은, 2006).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각 사례별로 세부적인 영역별로 개념을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하였다. 다시 의미 있는 개념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제를 다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각 사례별로 부부갈등에 대한 대범주를 통해 소범주와 사례 내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범주를 분석하는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위하여 Patton(2002)이 제시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적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가 편향되거나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고 상담을 전공한 교수 1명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석사 1명이 녹취한 내용을 듣고 녹취록을 읽은 후 연구대상의 의도에 맞게 의미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명이 도출된 주제, 범주 및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적 이슈를 엄수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사전에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4. 결과 분석

사례 간 분석결과 부부갈등 경험의 결정적 사건 5개 소범주, 12개 내용, 전개 4개 소범주, 17개 내용, 대처는 6개 소범주, 16개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가정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에 대한 사례 간 분석결과

영역	대범주	소범주	핵심내용
결정적 사건		남편과 시부모가 무시했다고 하네요	-너 그럼 다 내놓고 나가라 -각서를 쓰게 했어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아내를 신뢰하기 어려워요	-한국남자랑 결혼해서 돈 벌러 온거 아닌가? -여편은 왜 숨겨? 도망가려구?
		돈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 돈부쳐주는 게 우선이죠. 밥도 안먹어요 -돈쓰고 돈버는 것만 관심있어요

〈표 2〉 계속

영역	대범주	소범주	핵심내용
부 부 갈 등 경 험	결정적 사건	아직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한류드라마와 현실은 다르죠 -나는 친구가 좋고 아내는 혼자니까 무섭대요 -밥과 청소를 시켜야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것만 배워요	-집 나갔다 오면 잘 해주더라 -다른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문화)갈등이 더 심해졌죠	-베트남 엄마와 한국 딸의 줄다리기에 갈팡질팡했죠 -시댁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습관처럼 돈을 친정으로 보내요 -베트남은 다 그렇대요 -순종하지 않아 실망스러워요 -늦게 결혼해서 힘들어요
	전개	비난과 분노조절이 어려웠어요	-참으려 해도 분노가 안참아지죠 -너(부인)가 잘못된 거야
		헤어짐과 이혼을 예고하고 아내가 가출했죠	-나에게서 도망가려구 하죠 -사내 못사네 하면서 다시 가겠다고 해요 -이혼을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생각해요 -헤어짐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약도 먹었어요
		대화와 소통의 한계가 심해졌어요	-싸울 땐 한국말로 해줘 -신랑한테 얘기하고 보내야지 -싸움도 감정이 전달돼야 하죠 -같이 살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였죠
	대처	무조건 참고 달래줘요	-헤어짐이 두려워 속 터져도 참아요 -집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면 달래요 -(웃으면서)너 오빠한테 욕하는거야? -시간 밖에 없어요
		함께 경제 활동해요	-각자 벌어서 집에 보내자
		다른 몰두할 것을 찾아요	-인터넷에 푹 빠뜨렸어요 -애기 낳고 남편으로 거듭났어요
		종교와 모임, 사회기관을 이용하죠	-사회기관이 덕도 복도 주고 이혼을 조장 하는 거 같기도 해요 -종교의 힘으로 버텨요 -다문화부부 모임이 힘이 돼요
		믿음과 규칙이 생겼어요	-비은 땅이 단단히 굳듯 믿음으로 뭉쳤죠 -통장, 월급, 보너스 받으면 집사람 다 줘요 -부부싸움의 규칙은 웃음이죠
		아내를 제한하고 강하게 나가요	-외국 여자 바깥으로 돌면 도망간다 -이혼하자고 말해요 -아내 취직은 안심되는 곳으로 보내죠

### 4.1. 부부갈등의 결정적 사건

#### 4.1.1. 남편과 시부모가 무시했다고 하네요

사례2와 사례3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남편은 부부의 갈등이 아내가 남편과 시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이를 호소하며 문제제기를 하면서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간의 사소한 의사소통과 다툼에 시부모가 쉽게 관여하고 일방적으로 남편의 입장만 두둔하면서 고부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부부간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다.

한 번은 저희 엄마하고 진짜 한 번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얘기를 못했는데 국제결혼하면은 시댁에 장모님 덕에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얼마 주잖아요. 그런 관례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예전에 집사람이 이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적 있어요. 온 지 얼마 안돼서, 저희 엄마가 너 그러면 다 내놓고 가라 그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자기가 무슨 돈 주고 사온 사람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사례2)

그날도 와서 잔소리, 잔소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내가 화가 너무 났어요. 아버지가 너 짐 싸서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완전히 돌아서 짐을 싣 거예요. 나가겠

다고, 애 데리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밖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진짜 나가니까 아버지가 겁이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례3)

#### 4.1.2. 아내를 신뢰하기 어려워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부장적 역할 기대 즉 자신의 전처소생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 줄 것이다, 시부모를 잘 봉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례1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둘 사이의 자녀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막상 부인이 임신을 한 후 딸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유산을 권유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출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과 부부간의 자녀출산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문제에 대하여 아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남편의 기본적 태도를 반영한다. 사례2는 아내의 여권이 없어진 걸 발견한 남편이 도망가려고 하는가보다 하고 놀라 크게 싸움을 하였고 그 길로 아내는 이주여성쉼터로 큰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다. 이처럼 부부간의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사례8은 현재 실직되어 경제적으로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내가 공장에 나가 주야간으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정을 위해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은 부인이 이후에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갈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믿고 아내를 의심하며 직장을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 사례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실직과 아내의 경제 활동에서 오는 경제적 주도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애를 하나 낳고 살라고 했는데 사실 애를 하나 갖기는 가졌어요. 근데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그때 또 딸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낳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 낳았어요. (중략) 인공유산이요. 둘이 의논했죠. 둘이 했는데 나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했는데 거의 내가 좀 많이 동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많이 후회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건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고 그 사람도 그때 그러고 나서 베트남을 갔다 온다 하고 집을 나가고 사실 도주를 해버렸어요. (사례1)

자기 살 궁리는 다하고 들어와요. 집사람 왔을 때도 연락 처 몇 개는 가지고 왔었어요. 8-9개는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여권도 숨겼었어요. (중략) 이거 왜 숨겨놨냐. (중략) 크게 싸웠어요. 집사람 울고불고 저는 기분이 나쁘죠. (중략) 집사람이 짐을 싸고 얘기를 데리고 그 날 그때 첫째만 있었거든요 근데 놀이방에 있는 얘기를 데리고 가 버린 거야. 보호소에 두 달 정도. (사례2)

거기 가서 그렇게 450만원 그렇게 벌어서 그런 마음이라면은 남편한테 와서 이렇게 오빠 제가 땅을 좀 샀어요. 은행에 좀 넣어 뒀어요. 뭘 얘기를 남편한테서 상의를 한마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략) 이렇게 야간 근무까지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제가 나쁜 말로 돈 벌러 오는 사람보다 더 독하다. 산업 연수생이 와도 이렇게 생활하진 않을 거다. 결국 마음은 돈 벌러 위장 취업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돈 벌러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이걸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하나까 보기 싫어요. 야간 일을 하지 않고 집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랑 싸울 일이 없죠. (사례8)

#### 4.2.3. 돈밖에 몰라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의 힘든 것을 몰라주고 친절이나 본국의 친자녀에게 돈만 부치는 것을 생각하여 돈을 보내주면 고맙다고 하고 보내지 못하면 화를 내고 말을 하지 않아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들은 아내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치장에만 신경을 쓰고 가정 경제에 보탬을 주지 않는 아내를 힘들어 하고 있었다. 반면 경제력이 역전이 되어 남편은 직장을 잃고 아내가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고 돈만 모으는 아내를 보기에 불만인 남편도 있었다.

하루에 한 번꼴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는데... 인제... 친정이 못살다 보니까 집에서 인제 집에서 인제 돈 좀 보내달란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색시는 우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안해요. 처음에는... (중략) 여성들이 인제 다문화가정으로 오는 여성들이 외국으로 오는 게 돈. 우선 친정살리기 그런 거 때문에 오는 거 같아요. (사례4)

지금 베트남에서 어떤 나라에서든 한국에 시집온 거면 그

사람 사랑해서 한 게 아닌 거 같애. (중략) 경제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인제 뭐 1년에 그쪽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가 벌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가지고서는 인제 한 달에 얼마씩 뭐 그쪽 애들 가르칠 때마다 큰애 고등학교 그쪽 고등학교 가르칠 때까지 이제 여기서 돈을 대준거지. (사례1)

친정에 인제 보내죠~ 근데 첨에는 저도 안 보낼려 그랬는데 원체 친정이 여름에... 수해나고 그러면 그니깐 올해 옛날 살던 생각하면 진짜 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자꾸만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사례5)

보면 자기 치장하고 신발사고 나가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음식 먹고 놀러 댕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를 보면 신발이든 나든 옷이든 내 옷은 몇 개 안 돼 솔직하게. (중략) 우선 스스로없이 다 써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 (사례7)

너 베트남에서 평생을 벌어도 지금 벌고 있는 만큼 벌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일하고 돈만 모으고 쓰기도 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공장 일을 주야간 돌아가면서 밤낮 일만 하는데 10개월 동안 많이 참아줬으니 이제 적당한 일자리 찾아서 일하고 집안일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사례8)

#### 4.1.4. 아직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내는 결혼 할 당시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 한국의 이미지가 매우 좋았으며 마을에 한국으로 시집가서 친정집에 돈을 보내주는 집들이 있었다고 한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고 왔던 아내의 결혼 생활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다. 아내는 시골에 아주 오래된 흙집에서 신선 생활을 시작해서 많이 실망했으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였다. 생활이 힘들 때 짜증내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주변의 영향으로 이혼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남편은 또래보다 늦은 결혼으로 친구들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없고 노총각으로 오래 지내면서 익숙해진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지속함으로써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플하우스! 전 무슨 카드게임 나오는 건지 알았어. 아예 안 본다. 근데 드라마가 CD로 만들어져서 다 보고 아예 소장하고 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열풍이 있더라고요. (중략) 그 열풍이 한국에 대한 뭐랄까 ... 이상, 코리안 드림, 한국을 아주 멋있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중략)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좌절감이 있었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3)

제가 밤새고 친구들 만나고... (중략) 네... 뭐 친구들 하고... 모임... 두 달에 한 번... 외박하고... (중략)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중략) 혼자니까... 계속 그러니까... 누가 올까 봐 혼자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한 달에 만나면 노래방도 가고 두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인데. (사례5)

#### 4.1.5.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워요

사례7은 어린 신부가 한국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살림을 잘 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가 이미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던 친구를 만나면서 아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였다. 아내의 베트남 친구가 남편과 싸우고 집을 며칠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더라는 얘기를 해서 사례7의 아내가 그런 못된 것을 배우고 있다며 베트남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싸우고 집을 나갈까 두려워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을 막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사례8의 남편도 처음부터 베트남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반대했으며 친구를 만나면 변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성에게 좋지 않은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변의 편견이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에 시집을 딱 왔는데 여기 이제 가까운 친구를 만난 거야. 저쪽 뭘 빌라 친구 그 친구는 한국에 시집 온지가 벌써 그 당시 7년이나 된 거예요 한국에 뭐든지 빨리 알잖아 근데 그 여자가 신랑을 휘어잡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중략) 나까지 통제하겠다 이거지.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중략) 한국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하도 열받아가지고 너 그럴 바에 너 친구한테 그렇게 혼자 살아 나 신랑 집 나갈 테니까 나



그냥 또 집사람이 울고 난리가 난 거지. (중략) 그 친구가 한번 그 신랑 말 안 듣고서 한 번 멀리 갔었대요. 광주에 대군가 어딘가 갔었대. (중략) 며칠 갔는지 집을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다 알려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사례7)

처음에 문화센터 나갈 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문화센터 나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으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중략)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저는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가게 했어요. 그래야 한국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저가 나갈 때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친구들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중략)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거 나쁜 것부터 배워가지고 (중략) 뭐 다른 남편들은 얼마를 벌어서 오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잘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남편이 돈을 주더라 하는 것들을 배워서 써먹는 거죠. (사례8)

## 4.2. 부부갈등의 전개

### 4.2.1. (문화) 갈등이 더 심해졌죠

사례1의 경우에는 아내는 (한국의) 큰딸이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신의 자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례6은 처음 결혼 할 때 각서를 순순히 써주던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살면서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 모습에 적잖게 놀라워하였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남편은 아내의 순종적이지 못한 태도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태도에 실망을 하였다. 싸움을 통해 격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더 많은 오해를 쌓게 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의 문화적 이해 차이가 부부 갈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아내를 둔 사례7과 사례8은 아내가 베트남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많이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가 모국의 친구들을 만나 남편들을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모습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비교당하고 압박해 오는 아내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내를 통제하기 힘들어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쪽 애들(남편의 자녀)은 그게 아니고 전부 해주길 바라

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애네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들이 그냥 스스로 거기다 나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엄마는 그쪽 문화를 생각하지 이쪽 문화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략)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그냥... 진짜 야속하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싫어하고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양쪽을 다 붙들고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사례1)

아이를 낳고 나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점점 강하게 하더라구요, 성격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더라구요. (중략) 구체적으로 보면 외식을 할 때 메뉴를 정할 때도 나와 의견이 반대예요. 한식을 먹자고 하면 중식을 먹겠다고 하고 (중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해서 잘 조절이 안되더라고요. (중략) 결혼할 당시의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만 갖고 살다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 실망감이 들었죠. 괜히 후회도 스럽고... (사례6)

집사람하고 한국문화가 틀려요. 어른에 대한 공경 그런 게 조금 틀리고 집사람은 그냥 저하고만 살고 싶고 우리 시댁식구들과고는 좀 그렇죠... (중략) 나중에 나가서 살면은 니네 남편 라면만 끓여줄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중략) 그냥 뭐 니네 식구들끼리 니들끼리 잘 살아라. 니들 나 없이 살아봐라 그런 식... 그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엄마가 속하고 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2)

그 친구가 어떻게 창동에 시집와가지고 신랑한테 뭐 달라 하면 막 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뭐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중략)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나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나보고 애들 맡겨놓고 나가요. 저번에도 한번 친구하고 술 한번 잔뜩 먹어가지고 수원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핏 들었는데 완전히 방에 뚝 뻗어 있더라니까요. (중략)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건 하면은 뭐 해가지고 대들면 뭐 베트남 갔다 오고 싶다 그러면 애네들은 자랑을 해요. 서로가 그럼 집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집사람도 열 받잖아. 제 친구들은 다 간다는데 그런 거 너는 부러워하지 마 우리는 우리 처지에 맞게 살아야 한다. 신랑 돈도 못 벌고 그런데 너 갔다 오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뭘지 알아요? 오늘 다 쓰고 죽어도 내일 후회를 안 한다는 거야. (사례7)

#### 4.2.2. 비난과 분노 조절이 어려웠어요

사례1과 사례2는 아내가 시부모님과 자신의 원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거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아내가 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아내를 비난하여 부부갈등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였다.

찾김에 그냥 확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면 그럼 헤어지자. (중략) 작은애한테는 잘해주는데 큰애하고 마찰이 생키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그냥... 진짜 야속하드라고요. (사례1)

집사람은 화풀이 할 때가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근데 제 성격상 또 잘못된 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고서 이걸 너가 잘못된 거다! (중략)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워요. (사례2)

#### 4.2.3. 헤어짐과 이혼을 예고하고 아내가 가출했죠

남편들이 아내가 항상 도망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2의 경우 아내의 여권이 항상 있던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한 남편은 이로 인해 싸움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그 일로 아이 둘을 데리고 이주여성쉼터로 가출을 하였다. 아내의 가출로 인해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비애감을 느꼈고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국제결혼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아내를 의심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게 되었으며, 이는 아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가출로 남편의 심리적 문제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는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만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불안감. (중략) 지금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죽으려고 약도 먹었었어요. (중략) 그래서 제가 우리병원 여기서 중환자실에서 5일 동안 미친척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었던거든요. 그때 살짝 장모님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중략). 어느 한 순간에 장모님 왔다갔으니

까 집사람이 나 약 먹은 거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해줬나봐. 근데 집사람이 안 믿은 거예요. 약 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사례2)

#### 4.2.4. 대화와 소통의 한계가 심해졌어요

남편들의 아내와의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깊이 있는 정서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생각으로 정서적인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부부의 친밀함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감정적인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례3과 사례5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갈등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고 싸울 때 문제가 두드러지고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싸울 때) 나랑 이야기 할 땐 이상하게 한국말 전혀 하지 않는단니까. 애시 당초 길을 잘못 들인 것 같아. 그래서 교육이 무서워. 처음부터 영어를 했더니 한국말을 쓰질 않아. 내가 몇 차례 불만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 싸울 때 타갈로우 말 쓰지 않고 영어나 한국말 쓰기. 이런 의사소통의 불만으로 인해 내가 한국 여자랑 결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사례3)

아직은 대화.. 대화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인제... 뭐라 해야 돼. (중략) 시간밖에 없어요. (사례5)

### 4.3. 부부갈등의 대처

#### 4.3.1. 무조건 참고 달래줘요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의 가출이나 주변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지켜보면서 무조건 참고 달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사례7은 경제력과 더불어 성적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앞으로 미래에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 갈까봐 심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려 노력

하고 있었다. 사례8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주변에서 늙은 남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돈이나 잘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랄까 깊이 있는 대화가 안되니까 그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다문화 가정들의 남편들이 저와 같은 느낌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남편이 참아주던가, 아내가 참아 주던가, 아님 둘 다 조금씩 양보하던가 하지 않으면 아마 이혼으로 가요. (사례6)

방에 있을 때 집사람한테 가서 니가 참으라고 니가 참으면 그냥 집안 조용해지니까 참으라고... (중략) 바로 등 돌렸다가 언제 딸, 부모였냐고 그런 식으로... 집사람은 또 인제 나한테 당신 엄마는 어찌고저찌고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흥을 봐 그러면 난 인제 에이 그런가보다. 어 ~그래그래. (사례2)

참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착한사람이라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은 거지. 내가 착한사람이 아니고... (중략) 그냥 속 터지죠. 그냥 속이 우라지게 터지죠. (중략) 그냥 내가 더 덮어두고 그냥 그 다음에 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기로 조금씩 이렇게 하고 거의 그냥 싸움거리들 싸울 거리가 있으면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참는 거죠. (사례1)

지금도 힘이 없지만 지금 보면은... 뭐라 해야 할까...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집사람은 한국사람이잖아요. 한국사람이니까 자기가 애들만 크면 그러면 애들만 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예... 보면 이제 바람... 좀 (중략) 아 너무 밤마다 보면은 잠은 안자고 매일 인터넷을 해요 밤마다 핸드폰으로 (중략) 그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남자 그거에 뭐 성인 부러진 거 그걸 보잖아 남자 고추에 빠들은 거 어딴냐? 그런 것도 막 보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중략) 근데 집사람은 눈빛이 그래요. 잠을 안자 내가 잠을 딱 안자는 이상은 잠을 안자 계속 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한번 안 들어 주면요 발로 뺨 차버려요. (사례4)

아내는 나중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모은다고 근데 그게 제가 공감할 수 없다면 아 더 열심히 해라 할 수 있고 생활에 일조라도 할 수 있어요. (중략) 제가 그때 이상한 전화가 그때 어떤 여러 가지가 많이 싸여 있는 게 뭐냐면 밥먹는

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밥먹고 뭐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안 받고 안 받고 끊어버려요 저는 그 전에는 통화 그런 거 안했어요 근데 끊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삭제를 해버렸어요. (중략)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얘기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저기 할지 몰라도 이게 옆에서 저거하면은 나중에 저거하면은 한국남편이 저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돈 챙겨놓는 게 이런 식의 말을 많이 꼬드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례8)

#### 4.3.2. 함께 경제 활동해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친정 및 친자녀에 대한 지원 등 현실적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남편이 먼저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마음을 믿게 된 후 부부는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이 생겼고 힘들었던 가정 경제도 합리적으로 함께 잘 풀어 나가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인제 애들 때문에 우선 뭐 여가 나올 적에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중략) 경제적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인제 뭐 1년에 그쪽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가 벌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가지고서는 인제 한 달에 얼마씩 뭐 그쪽 애들 가르칠 때마다 큰애 고등학교 그쪽 고등학교 가르칠 때까지 이제 여기서 돈을 대준 거지. (사례1)

#### 4.3.3. 다른 몰두할 것을 찾아요

남편의 주변에 가출을 하는 가정들이 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예 외부의 출입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남편이 있었으며 늦은 장가로 인해 갖게 된 자식에게 집중하여 가정에 충실해지는 남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뭘로 찾았냐. 인터넷에 빠뜨려 버렸어, 일부러 그랬어. 진짜로. (중략) 인터넷에 폭 빠뜨렸어요. 게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필리핀인들과 얼마든지 교체해라. (사례3)

외박은 얘기 낳고 나서는 한 번도 안했어요. (중략) 얘기 낳고 나서는 한 번도 안했어요. (중략) 아들이라 좋았고... 이제 큰 애는 내 얼굴... 난 침에 얼굴 까말 줄 알았는데 허영계

나와 갖구 기분이 좋았구(웃음). (사례5)

#### 4.3.4. 종교와 모임, 사회기관을 이용하죠

사례1과 사례5는 부부갈등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남편들도 있었다. 아내의 자녀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내와 출신국적이 같은 나라의 다문화가정 부부 동반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지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거기를 물어봤더니 큰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부랴부랴 그때 신청해가지고는 (중략) 다문화에서도 인제 또 많이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문화센터에서 우리에 대해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사례1)

모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합이 안 돼요 우리는 8명이서 한 달에 한번 만나요. 와이프랑 같이 부부동반해서. (중략) 그 모임에서 도움 받는 건 서로가 대화를 해갔고 안 되는 건 좀 참고... 좋은 거는 이렇게 나가자 이런 게 있고. (중략) 다베트남이요. 우리가 모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중략) 한 1년 정도. (사례5)

#### 4.3.5. 믿음과 규칙이 생겼어요

남편들은 부부갈등을 겪은 후 아내를 믿어야 아내도 자신을 믿고 따라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내들도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배제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가정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가정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부갈등 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으로써 진정한 가정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도 보였다. 사례7은 부부갈등을 화해함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만의 스킨십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화보다는 부부의 성적 스킨십으로 갈등의 근원적 원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부부싸움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냥 이제 많이 믿는 편이죠. 도망가도 내가 못해줘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려고 하죠. 만약에 가면은... 근데 지

금 집사람을 지켜보면 도망갈려는 거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저는 그게 되게 고맙죠. (중략) 일단은 경제권을 집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도 있지만 경제권은 다 주고 싶어요. (중략) 믿음을 보여준다고 그래야 되나. 솔직히 썩판 모르다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서로 못 믿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망가고 따로 따로 살고 그거대로 많이 싸우는 거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아닐까.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면 서로 그냥 좋게 얘기를 하죠. 그냥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짐 못 뺄는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랬을 때는 정말 나 이랬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도 또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 때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집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저도 인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나까 확실히 싸우는 게 덜해요. 참고... (사례2)

그럼 내가 가 가지고 툭툭 치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등 툭툭 치고 나서 그럼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중략) 말을 하면요 싸움이 또 연결이 되요 연결이 되면 말을 하면 안돼요. (사례7)

#### 4.3.6. 아내를 제한하고 강하게 나가요

여전히 남편들은 아내가 언제든지 도망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남편은 주변에 다문화 가정 여성이 가출을 하는 가정들이 많고 주로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경제 활동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사례8의 경우에는 아내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남편은 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반복되는 이혼 접수에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부부관계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식당에서 일하다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중략) 개네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안 된다. 바람들어 도망간다. 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3년 안에 만나면 일이 터져. 근데 저는

철저히 못 만나게 했거든. (중략) 저는 처음부터 못 만나게 했어. 통제를 했거든. (사례3)

직장을 안 보낼래도 사실 직장 내보내기도 겁이나요~ 그니까 모르는데 직장을 내보내면 일이 같은 동족 남자들이 연락이 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경찰서에 의뢰한 적이 있어요. 여기 베트남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 식으로... (사례4)

이혼하자 해서 이걸 내가 두들겨 팼 수도 없고 제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아주 사람 엄청 지르듯이 막 말 안하고 위 아래로 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아주 더 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그래 한번 '이혼해' 이런 식으로 해보자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례8)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을 남편의 입장에서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남편이 경험한 부부갈등의 결정적 사건은 '남편과 시부모가 무시했다고 하네요', '아내를 신뢰하기 어려워요', '돈밖에 몰라요', '아직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것만 배워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남성들이 외국인 아내와 어떤 갈등과 고충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민정, 2009; 노충래 외, 2010; 김진숙, 이혁구, & 이근무, 2009; 임춘희, 2014; 최지영, 2009)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장온정, 2007; 조해선 & 류진아, 2013). 즉 한국으로 결혼해오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국제결혼 현실은 이주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 남성들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문제점도 커지고(채옥희 & 홍달아기, 2008), 이들의 기대는 입국 후 좌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나 생활습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및 스

트레스, 가정 경제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권구영, 박근우, 2007). 이러한 아내의 결혼동기와 기대는 남편과의 부부갈등에 대한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이나 편견 혹은 동등한 기회의 박탈을 높게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느끼므로(오광실 & 정혜정, 2012) 남편과 시부모의 무시와 불신은 부부갈등의 결정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대화가 잘 통하는 모국의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친구집단을 형성하여 정보를 교류하며 다소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남편과 부부관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인보다 나이가 많고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남편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재된 불안은 부부갈등의 결정적 계기로 심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둘째, 부부갈등의 전개과정은 '문화갈등이 더 심해졌죠', '비난과 분노 조절이 어려웠어요', '헤어짐과 이혼을 예고하고 아내가 가출했죠', '대화와 소통의 한계가 심해졌어요'로 나타났다. 국제결혼한 남편은 아내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설동훈 외, 2005). 따라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상호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언어폭력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으며(김상임, 2004) 부부갈등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장온정(2007)은 한국인 남편들이 결혼 이후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국남편들의 가치관 특성은 근대적인 성역할관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지어져서 이런 생활습관들에 적응하기가 서로 힘들어 부부갈등이 된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이 전개되면서 문화(갈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서로 비난과 분노표출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가출과 이혼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셋째, 남편의 부부갈등 대처는 '무조건 참고 달래줘요', '함께 경제활동해요', '다른 몰두할 것을 찾아요', '종교와 모임, 사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규칙이 생겼어요', '아내를 제한하고 강하게 나가요'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매스미디어의 피해사례에서는 다문화여성들의 한국적응의 부작용으로 남편과의 갈등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조명하고 남편이 갈등유발자 및 폭력유발자로 이해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들은 대부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짧은 기간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내를 만나 가족이라는 가장 친

밀한 공간에서 매일 부딪치고 협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계층적, 사회적 재생산의 불평등과 지구화의 짐을 외국인 부인과 함께 한국인 남편들도 지고 있는 것이다(윤형숙, 2004). 다문화가정 남편은 부부갈등 경험을 통해 참고 달래주고 믿음을 갖고 아내를 인정하는 것이 부부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갈등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믿음과 규칙을 만들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종교나 다른 다문화가정의 모임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아내를 외부출입을 제한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등 강하게 행동함으로써 아내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신하는 경향도 보였다.

부부갈등은 가정생활 중 부부가 각자 경험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긴장(이경희, 1998; 이미영 & 박혜인, 1995; 최선희 & 전명희, 1999)으로 볼 수 있다.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고 많은 상황들이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명자, 2009).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에서 잠재해 있던 부부간의 차이를 표출시켜 서로 조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까지도 한다(김남진, 2005)고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잘 극복하였을 경우 진정한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를 도모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결혼 만족은 배우자의 지지와 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김근식 & 장운정, 2009; 김오남, 2006; 노충례 외, 2010)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편이 참고 달래주고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 부부관계와 적응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인정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다(권정란 & 이인수, 2006; 정은희, 2004)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정 남편은 부부갈등 경험을 통하여 인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부부관계와 적응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사회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이중적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한가정

의 가장으로 내외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잠재해 있던 부부간의 차이를 표출시켜 서로 조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김남진 & 김영희, 2005) 부부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중심의 가부장적 관계와 문화동화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부부가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문화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참으며 인내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결혼과 아내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남편들이 경험하는 갈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잘 극복하였을 경우 진정한 부부관계를 갖게 되는 경험들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내들의 출신 나라 별로 문화가 다르며, 연령과 결혼기간 등 개인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남편이 경험하는 갈등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1. 강기정, & 변미희. (2009).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23-136.
2. 구향숙. (2013). 다문화가족 남편의 부부갈등대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79-108.
3. 권구영, &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연구*, 14, 187-219.
4. 권정란, & 이인수. (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35-50.
5. 김근식, & 장운정. (2009).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

- 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223-247.
6. 김남진, & 김영희. (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97-225.
  7. 김민정. (2012).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223-247.
  8. 김민정.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사회부적응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679-693.
  9. 김상임. (2011). 소그룹 협동놀이를 통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4-76.
  11. 김용배. (2012).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우현. (2010). 다문화가정의 결혼초기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김진숙, 이혁구, & 이근무. (2010).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연구: 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30, 135-166.
  14. 김태임, 권윤정, & 김미중. (2012).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도시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85-97.
  15. 김혜숙, 최진아, 신희천, & 이주연. (2011). 도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99-322.
  16. 나정임. (2011). 다문화 가정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노충래, 강현주, & 최미지. (2010).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105-134.
  18. 도현심, 김민정, 김상원, 최미경, & 김재희. (2011).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5), 85-101.
  19.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문제*, 17(2), 75-105.
  21. 박태영,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부부치료. *한국가족복지학*, 167-196.
  22. 박은지. (2011).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배우자 의사소통의 영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박정희. (2010). 부부갈등과 초등학교의 표출 불안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27-48.
  24. 박형식. (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6.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219-239.
  27. 성도경, & 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28. 신경희, & 양성.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2), 1-8.
  29. 오광실, & 정혜정. (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153-171.
  30. 양영은, & 배임.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31. 양진향, 박현주, 김송순, 강은정, 변상희, & 방지수. (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2(1), 36-47.
  32.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33. 여성가족부. (20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
  34. 오광실, & 정혜정. (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153-171.
  35.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36. 윤희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
  37. 원서진, & 송인욱.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38. 이미영, & 박혜인. (1995).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39. 이민식, &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40. 이명자. (2009).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이아진, & 최연실. (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71-90.
42.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CQR)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1), 143-176.
43. 이은정. (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이영선. (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이영숙, & 박경란. (2011). 부부의 성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결혼기간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731-743.
46. 이영희. (201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와 다문화*, 1(2), 39-78.
47. 임성옥, 강성률. (2011). 다문화가족 한국인남편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251-272.
48. 임옥경. (2010).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위한 교육내용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임지윤, 문동규, & 김영희. (2009). 아버지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93-118.
50. 임춘희. (2014). 다문화가족 재혼남성의 결혼생활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27-54.
51. 장운정. (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2. 전현영.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17년 결혼생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기. *교육연구논총*, 23-47.
53. 정문자, & 이종원. (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54.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 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56. 조혜선, & 류진아. (2013).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1), 265-297.
57. 채옥희, &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58. 최미나, & 유평수. (2014).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79-102.
59. 최선희, & 전명희. (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8, 284-308.
60. 최의신. (2009). 베트남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생활실태와 가족기능,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62. 최해금. (2007).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 통계청. (2012a).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64. 통계청. (2012b). 이혼종류별 외국인과의 이혼.
65. 한국법률상담소. (2012).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66. 한영숙. (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67. 홍성희. (2012).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49-175.
68.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2(3), 49-79.
69. 황민혜 &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70. 황성동 (2013).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 서울: 학지사.
71. Aldwin, C. M. (1994). Culture, stress, and coping. In C. M. Aldwin.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pp. 191-215). New York: Guilford Press.
72. Berry, J. W. (1996).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73. Chartier, K. G., & Caetano. (2012). International partner violence and alcohol problems interethnic and intra-ethnic cou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9), 1780-1801.
74. Ellis, M. (1991). Critical incid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d in supervisor supervision: Assessing supervisory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42-349.
75. Flores, E., Tschann, J. Marin, B., & Pantoja, P. (2004). Marital conflict and acculturation among Mexican American husbands and wiv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0, 39-52.
76. Goodyear, R. K., Crego, C. A., & Johnstone, M. W. (1992). Ethnical issues in supervision or student research: A study of critical incid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3(3), 203-210.



77.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New York: Spinger.
78. Moos, R. H., & Schaefer,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S. Breznitz(2nd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34-257). NY: Free Press.
79.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80. Schwartz, A. L. (2002). Marital quality, accultation, and communication in Mexican American Couples, All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 1048. Retrived from <http://digitalcommons.usu.edu/etd/1048>.
81. Scott, A. E. (2004). Counselor development through critical incidents: A qualitative study od intern experiences during the predoctoral internship.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82. Stake, R. E. (1995). 질적사례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공역. 서울. 창지사.
83.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Eun-Kyung Jang has been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duties in Dongd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grown children.

Address: (483-030) Second floor, slapping Hope Center, 249 Jungang-ro, Dongducheo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happy725@hanmail.net



Dr. Jin-A Ryu is a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Shinhan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child and adolescent's welfare especially counseling.

Address: (480-701)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inhan University, 95 Hoam-ro, Uijeongbu,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jina1031@shinhan.ac.kr  
phone) 82-31-870-3616

Received 10 February 2015; Revised 13 June 2015; Accepted 15 June 2015